

Dylan Thomas의 시에 나타난 實存의 人間像

李 景 植*

- I. 序論—詩와 實存
- II. Dylan Thomas의 詩의 本質
 - 1. Dylan Thomas의 詩의 一般의 特徵
 - 2. Dylan Thomas와 超現實主義와의 關係
- III. Dylan Thomas의 Imagery
 - 1. 죽음과 性의 Imagery
 - 2. 宗教的 Imagery
- IV. 結論—Dylan Thomas의 神話와 實存의 人間像

I. 序論—詩와 實存

우수한 民族이 그 뿌리에 아름다운 神話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세기 前半期에 등장했던 Dylan Thomas의 시에는 야릇한 神話의 빛이 감돌고 있다. 미국에서 詩의 講演旅行을 하는 도중, Thomas는 39세를 최후로, 뉴욕의 한 병원에서 홀로 제법 확실한 意識속에서 「나는 죽어서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他界하였다.

그가 제기했던 문제들—삶과 죽음, 性과 사랑, 그리고 神과 祈禱와 같은 人間 存在의 根源의인 문제들은 당대 두차례의 世界大戰을 겪은 英國詩境의 主役들 즉 T.S 엘리엇과 Auden 일파의 詩人들의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Anti-thesis를 이루고 있었다. Dylan Thomas의 詩의 本質의인 問題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Anti-thesis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人間에 있어서 永遠한 문제였던 實存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Dylan Thomas는 이 世上의 事象으로부터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實存의 모습을 직접 보려고 한 詩人이었다. 그의 詩作品 하나 하나가 바로 實存의 構圖였던 것이다. 그러나 Thomas는 實存의 人間像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빛을 향한 鄉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現實的으로는 어둠의 深淵속에 갇혀 있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悲劇的 人間像을 발견하게 된다.

모름지기 詩人은, 人間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形而上學的 實在의 探究者이며 發見者일 것이며 詩는 궁극적인 存在의 認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詩人은 궁극적인 存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뇌를 통해서 숨겨진 實在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dis-cover) 것이다. 그러나 詩人은 직접 絕對者를 볼 수는 없다. 직접 絕對者를 보았다고 할때 그곳에는 다만 沈

* 人文大學 英文學科 教授

默이 있을 뿐일 것이다. 詩人은 絶對者를 볼 수 없는 까닭으로 땅 위에서 고뇌를 맛 보면서 詩를 쓴다. 詩人은 日常的基盤의 상실과 絶對者의 상실이라고 하는 二重의 悲劇性을 짚어 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二重의 몰락을 통해서 비로소 絶對者는 暗號로서 스스로를 숨기면서 啓示한다. 詩는 <未知의 神>과의 對話이며, 人間의 <말>이면서도 絶對者 앞에서는 人間의 <말>이 끝나버리는 限界 그자체인 것이다. Heidegger는 人間의 實存을 “Sein-zum-Tode”라고 했으며 詩란 神에의 貯藏의인 近接이라 했다.¹⁾ 그리고 Rilke가 『말테의 手記』에 나타난 죽음과 貧困의 實存的 體驗을 통해서 또한 『도위노의 悲歌』를 통한 人間의 根源的인 苦惱를 노래함으로써, 世界의 內面 空間에 깊숙히 찾아들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때, 우리들은 Rilke와 Dylan Thomas라는 두 詩人의 人間的 實存성과 詩的 vision의 Analogy를 發見하게 된다.

I dreamed my genesis in sweat of death, fallen
Twice in the feeling sea, grown
Stale of Adam's brine until, vision
Of new man strength, I seek the sun.²⁾

이것은 'I dreamed my Genesis' 라고 하는 Dylan Thomas의 初期詩의 最後의 四行이다. 詩人은 人間의 實存的 本質, 즉 人間은 性, 다시 말해서 原罪로부터 태어난 存在라는 사실과 아담의 轉落, 즉 人類의 始源的 <隨落>이라는 사실이 二重으로 겹쳐진 채 표현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養育하는 바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胎內에 있는 羊水를 나타내고 있는 同時에 人間 復活의 象徴으로서의 바다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後半의 二行은 前半의 二行을 받아서 <隨落>으로부터 새로운 人間의 復活, 즉 <第三의 아담(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人間의 vision은 그리스도의 vision과 겹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새로운 人間의 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詩에 나타난 太陽의 image는 앞서 말한 빛의 image일 것이며 이 太陽은 地上的인 <時間>의 概念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太陽이 아니라 實存的 世界의 끝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太陽일 것이다. Dylan Thomas에게 있어서, 이 太陽은 기독교의 「하늘」에 있는 太陽(神)은 아니었다. 그것은 現實이라고 하는 어둠속에서 빛나고 있는 生命力의 빛이었다.

I see the summer children in their mothers
Split up the brawned womb's weathers,

1) O. F. Bollnow, *Existenzphilosophie*, Kap. 10: Der Tod bei Rilke 및 W. Rehm: Der Todesgedanke in der deutschen Dichtung (Halle a.d. 1928) 참조.

2) Dylan Thomas, *Collected Poems, 1934-1952*, (London: J. M. Dent & Sons LTD), p. 29. (이하 本論文에서 인용한 Dylan Thomas의 詩는 본 詩集에서 인용하였으며, 차후에는 詩의 말미에 제목과 行數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Divide the night and day with fairy thumbs;
 There in the deep with quartered shades
 Of sun and moon they paint their dams
 As sunlight paints the shelling of their heads.
 (I see the boys of Summer, I-13-18).

We are the dark deniers, let us summon
 Death from a summer woman,
 A muscling life from lovers in their cramp,
 From the fair dead who flush the sea
 The bright-eyed worm on Davy's lamp,
 And from the planted womb the man of straw.
 (I see the boys of Summer, II-7-12).

Rilke를 가장 實存主義的 詩人이라고 O.F 보르노는 「릴케와 實存哲學」 속에서 말했던 것처럼, Dylan Thomas 역시 오로지 자기 자신 가운데서 자신의 生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는 짧았던 生涯 가운데서 約 20餘年이라고 하는 全詩作 期間을 통해서 항상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生의 意義를 스스로에게 납득 시켜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때, 오히려 그는 生의 神秘를 느끼고 生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는 수수방관한 채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덧없는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죽음의 恐怖로부터 脫出하려고 애를 썼다. 위에 든 詩를 생각해 보았을때도 Dylan Thomas는 그의 詩의 母體로서 發展했던 詩法은 한사람의 人間의 이를테면 아주 高度의 개인적 및 內面的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詩에 나타난 Intellect는 한 胎兒의 出生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視覺像의 경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윽고 그 感情을 환희 속으로, 다시 그것을 追求로 옮겨가고, 다시 또, 최후의 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포에 가득 찬 期待感覺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詩는 경악으로 가득 찬 期待感覺에의 새로운 世界像이 이상할 정도로 新鮮하게 표현되고 있는 詩이다.

아름은 Dylan Thomas는 그리스도의 復活說에다 에너르기 不滅의 法則을 援用함으로써, 독특한 삶과 죽음의 〈辯證法〉을 확립하였다. 그의 詩는 이러한 生死의 순환을 宇宙에 存在하는 萬物 속에서 발견해 가는 過程의 實存의 構圖라고 할 수 있다.

Dylan Thomas의 詩世界는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분명히 實存主義的 原理에 입각한 세계이다. 그는 人間과 世界의 原理는 바로 生과 死——혹은 創造力과 破壞力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라고 하는 同一原理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는 認識에 도달되고 있다.

Dylan Thomas는 그의 詩의 特徵이 되고 있는 性의 image를 이러한 原理에다 첨가시켜서

그의 詩世界를 展開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삶과 죽음과 性이라는 詩의 圖式이 成立될 뿐만 아니라, 그의 詩의 實存的 構圖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가 항상 性의 image로 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는 點을 생각할 때, Thomas는 性의 完全的 達成에 의해서 人間性의 회복을 절규했던 D. H. Lawrence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Dylan Thomas에게 있어서, 性의 充足은 삶의 환희도 영광도 아니었으며, 人間을 完成하는 길도 아니었다. Thomas가 묘사하는 性은 극히 具體的이며 日常的인 性이었으며, 또한 그의 內部에서 항상 그를 충동하고 괴롭히는, 男子의 性이었다.³⁾ 그리고 또 Thomas의 性은 노래함으로써 性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性은 저항하기 어려운 힘으로 男子를 괴롭히고 슬픔과 絶望을 가져다 주는 性이었다. 그는 性의 禮讚者가 아니라 被害者였다. Thomas에게 있어서 性은 죽음으로 통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詩 속에서 <죽음>이라는 낱말은 곧 性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性은 죽음과 똑같이 의미심장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性을 삶의 表象, 또는 삶의 근원적인 힘으로 認識하고 있다는 점에서 Thomas는 Freud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Thomas는 Freud와는 달리, 사랑에 있어서는 性에 의한 남녀의 結合 이외에도 다른 정신적인 要素를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Dylan Thomas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노래한 詩人이었다. 어쩌면 욕된 罪業이 되는 性으로부터, 혹은 또, 어쩌면 苦惱의 深淵일 수 밖에 없는 人間의 生과 死의 實存的인 限界로부터, 그리고 죽음일 수 밖에 없는 性의 淵으로부터 脫出하기 위해서 宗教的 情熱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노래하였다. Thomas를 neo-Romantic 혹은 宗教詩人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순진 무구한 과거, 그리고 幼年時節의 티없이 맑은 순수하고 단순했던 잃어버린 時間에의 鄉愁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Thomas가 詩에서 표현했던 것은 憧憬도, 또한 憧憬의 對象도 아닌, 苦痛과 苦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實存的인 모습, 悲劇的인 人間像이었던 것이다.

I have longed to move away but am afraid;
Some life, yet unspent, might explode
Out of the old lie burning on the ground,
And, crackling into the air, leave me half-blind.
Neither by night's ancient fear,
Pursed lips at the receiver,
Shall I fall to death's feather.
By these I would not care to die,
Half convention and half lie.

(I have longed to move away, 11-20)

3) Stuart Holroyd, *Dylan Thomas and Religion of the Instinctive life*, From J. M. Brinin (ed): a Casebook on Dylan Thomas, (1960), p. 144.

이 詩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Dylan Thomas 는 信仰上의 문제를 둘러싸고 內面的인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me life, yet unspent 는 긍정적인 vision 이며, 새로운 信仰, 그리고 새로운 生活方式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Dylan Thomas 는 밤이 지닌 古代의 공포와 같은 것을 항상 지니고 있으며, 그는 언제나 因襲과 虛僞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도망쳐서 찾아갈 곳은 밝디 밝은 讚美의 들녘이었던 것이다.

: it was all
 Shining, it was Adam and maiden,
 The sky gathered again
 And the sun grew round that very day.
 So it must have been after the birth of the simple light
 In the first, spinning place, the spellbound horses walking
 Warm
 Out of the whinnying green stable
 On to the fields of praise.
 ('Fern Hill', 32-40)

'Fern Hill' 이라는 詩 속에는 결코 感傷의인 要素는 없다. Thomas 는 悲觀主義者였으나 결코 絶望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삶만이 귀중한 것이었다. Thomas 의 詩는 有限한 삶 속에 存在하면서, 그리고 또 有限한 삶 속에 存在하는 까닭으로 한층 더 生命感이 넘치고 있으며 삶의 神秘와 삶의 환희를 느끼고 있는 人間을 노래한 詩가 되고 있다. Thomas 의 詩에는 宇宙的인 넓이가 있다. 이 사실은 Thomas 의 詩가 카톨릭적인 image, 내지는 종교적인 allusion 에 뒷받침 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실감케 한다. 生의 創造者야말로 Thomas 에게 있어서의 神이었다. 그가 찬양하고 믿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生의 創造主로서의 神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神은 길 잃은 羊을 인도해 주는 神이 아니고, 罪를 뉘우치고 구원을 祈求하는 人間에게 무한한 자비를 내리는 神도 아니었다. 다만 萬物을 창조하고, 이 世上에다 찬란한 삶을 가져다 준 창조자의 힘의 神이었다. 이렇듯 그의 神은 正統의인 기독교의 神은 아니었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Thomas 를 宗教詩人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創造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創造主로서의 神을 찬양한 그의 素朴한 態度를 가지고 그를 진정한 宗教詩人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실상 Thomas 자신은 信仰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聖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주장할 따름이었으나, 그것은 組織的인 研究가 없었다는 것 뿐이다. Thomas 자신의 image에 의한 思考方式과 더불어 기독교의 Symbolism 과 강력한 發想의 습관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해서 Thomas 의 詩의 背景에는, 雄大한 宇宙的 發想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항상 聖書的 Allusion 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Thomas 의 詩의 理解를 위해서는 聖書는 없어서는 안되는 한가지 要素가 되고 있으며, 그의 宗教性이란 그의 詩的 發想的 기본적인 틀, 다시말해서 原型의인 構造, 그리고 또 그의 肉體의 골격에 있어서의 宗教性인 것이다.

그가 죽기 전해에 나온 全詩集에 붙여 둔 覺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다.

These poems, with all their crudities, doubts, and confusions, are written for the love of Man and in the praise of God, and I'd be a damn⁴⁾ fool if they weren't.

Dylan Thomas 는 現代詩人으로서 어떤 意味를 지니고 있을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는 根原的인 곳에서 生命의 意味를 파헤친 詩人이었다. 본 論文에서 필자는 Dylan Thomas의 詩世界를 그의 詩의 imagery 를 통해서 그의 宗教性, 내지는 實存性을 규명해 보려고 한다. 즉 그의 實存의 人間像을 浮刻시켜 보려고 한다.

II. Dylan Thomas의 詩의 本質

1. Dylan Thomas의 詩의 一般의 特徵

유럽의 모든 우수한 詩人이 絶望的으로 열정과 고뇌를 안고 文明의 終末을 노래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을 무렵, Dylan Thomas 는 宇宙의 榮光을 노래하였다.⁵⁾ 1930年代 末에서부터 1940年代에 걸쳐서 英國에서는 社會的 不安과 經濟的 不安에도 불구하고 政治意識은 저즈기 高揚되고 있었으며 성급한 觀念의 뒷받침과 더불어 人間을 한층 더 全體的으로 파악하려는 운동이 일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정치적 휴전상태라든가, 社會的 및 經濟的인 소강 상태 밑에서 意識과 無意識, 精神과 肉體, 感情과 思想등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더욱 더 共感的인 世界를 되찾으려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運動은 超現實主義와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學, D. H. Lawrence 나 Herbert Read 의 思想的인 영향도 컸으나, 주로 實存主義的인 世界觀 내지는 思考方式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상을 가진 일파의 중심 인물은, Henry Treece, G. S. Fraser, J. F. Hendry 등이었다. 그들은 1939년에 "The New Apocalypse"를 그리고 1941년에는 "The white Horseman"이라고 하는 두개의 Anthology 를 출간함으로써, 처음에는 'The New Apocalypse'라 일컬어졌으며, 이 운동이 더욱 더 광

4) Dylan Thomas, *Collected poems, 1034-1052* (London: J. M. Dent & Son LTD, 1959) 권두의 Note를 참조.

5) A. T. Davies, *Dylan: Druid of the Broken Bod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64), p. 2.

6) G. S. Fraser, *Vision and Rhetoric* (London: Faber & Faber, 1959) p. 224.

범하고 형태없는 하나의思潮를 이루게 되자, 'The New Romanticism' 이라고 불리어졌다.⁶⁾ 물론 이 일파의 기수는 카프카와 Dylan Thomas 였다.

그들의 주장은, 神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격의 새로운 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대라고 하는 기계시대는 무서운 客觀化로 하여금 오히려 기계로부터의 해방을 인간은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서 神話의 부활을 들고 나왔다. 요컨데, 그들의 주장은 思想的으로는 Herbert Read 가 주장하는 바 일종의 Anarchism 을 信奉하고 있는 셈이며, 1930년대의 客觀主義로부터 벗어나서 社會的인 형태로 바뀜으로써, 새롭고 한층 더 유기적인 藝術形態를 추구해 나갔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神話를 중요시하고, 人間을 神話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점이 되고 있다. 序論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The New Apocalypse' 일파는 超現實主義의 변증법적인 발전이며, 超現實主義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要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은 神話를 창조하고 있으며 全人的인 詩를 포방한다. 결국 그들은 완전하고 調和를 이루고 있는 人間의 多樣性을 이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Dylan Thomas 와 超現實主義를 상론하기에 앞서 필자는 그의 詩의 特質을 照明함으로써 그와 超現實主義와의 關係를 해명할까 한다.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Drives my green age; that blasts the roots of trees
Is my destroyer.

And I am dumb to tell the crooked rose
My youth is bent by the same wintry fever.

The force that drives the water through the rocks
Drives my red blood; that dries the mouthing streams
Turns mine to wax.

And I am dumb to mouth unto my veins
How at the mountain spring the same mouth sucks.

The hand that whirls the water in the pool
Stirs the quicksand; that ropes the blowing wind
Hauls my shroud sail.

And I am dumb to tell the hanging man
How of my clay is made the hangman's lime.

The lips of time leech to the fountain head;
Love drips and gathers, but the fallen blood
Shall calm her sores.

And I am dumb to tell a weather's wind
How time has ticked a heaven round the stars.

And I am dumb to tell the lover's tomb
 How at my sheet goes the same crooked worm.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1930年代는 T. S. Eliot 이 英國詩壇을 支配하고 있었던 時代이다. 그러나 위의 詩를 읽어 보았을 때 Dylan Thomas 가 Eliot 의 詩를 읽었던 흔적과 영향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詩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Thomas 의 音聲과 言語, 그리고 울림이다. 뿐만아니라 詩 속에 나타난 詩人の 存在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Thomas 는 자신의 詩의 基調를 확립했으며, 죽을때까지 변치 않았다. 즉 삶과 죽음, 創造力과 破壞力의 일체화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삶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힘은 自然界나 人間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⁷⁾ Thomas 의 神秘的인 또는 汎神論的인 思想이 잘 나타나고 있다.

Dylan Thomas 의 詩는, 특히 初期詩에 있어서는 性과 함께 生과 死를 주제로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과 生命의 誕生을 주제로 하고 있다. 즉 죽음과 삶에 관한 그의 <辯證法>인 것이다. 그러나 J. Ackerm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Wales의 詩의 傳統의 特色인, 現實의 二元化, 不統一 속의 統一, 그리고 삶과 죽음의 共存의 意識이⁸⁾ 웨일즈인 이었던 Thomas 의 詩와 詩에는 底流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또 人生의 有限한 過程에 불과한 것이므로 人間의 認識만이 現在를 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昂揚시켜 준다고 Thomas 는 믿었다. 이것이 곧 그의 詩와 實存의 哲學이었던 것이다. 1945년에 발표된 그의 작품에는 'A Refusal to Mourn the Death, by fire, of a child in London'이라는 詩가 있다. 이 詩는 바로 죽음은 生의 契機가 된다고 하는 Thomas 의 思想을 가장 분명하게 表現해 주고 있다.

Never until the mankind making
 Bird beast and flower
 Fathering and all humbling darkness
 Tells with silence the last light breaking
 And the still hour
 Is come of the sea tumbling in harness
 And I must enter again the round
 Zion of the water bead
 And the synagogue of the ear of corn
 Shall I let pray the shadow of a sound
 Or sow my salt seed
 In the least valley of sackcloth to mourn
 The majesty and burning of the child's death.

7) Anthony Thwaite, *Twentieth-Century English Poetry* (London: Heinemann, 1978), p. 73

8) John Ackerman, *Dylan Thomas: His life & Wor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6.

I shall not murder
 The mankind of her going with a grave truth
 Nor blaspheme down the stations of the breath
 With any further
 Elegy of innocence and youth

 Deep with the first dead lies London's daughter,
 Robed in the long friends,
 The grains beyond age, the dark veins of her mother
 Secret by the unmourning water
 Of the riding Thames.
 After the first death, there is no other.

Dylan Thomas는 일찌기 시와 人間을 認識하고 있는것 같았다. 그러기에 그는 시로서 認識 될 수 있는 시를 썼으며, 이와같은 作品에서 Thomas는 人間の 存在와 죽음, 즉 生과 死 自然과 超自然 등에 대한 認識의 表現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그의 시에 肉體가 주 어졌음을 말한다. 'Refusal to Mourn'이라 함은, 애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애도가 너무나 지나친 까닭에 어린아이의 再生을 祈求한다는 逆說이다. 가령, "After the first death, there is no other"라는 表現이 있는데, 이것은 數字를 열거함으로써 無意味하게 되어버린 죽음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그 이상 더 부족한 表現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들은 沈默할 뿐, 그것은 이미 苦痛을 초월한 것이며, 이것이 구원이라기 보다는 시의 實存, 내지는 시의 靜寂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죽음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면, 산다는 것은, 사실상 그대로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意味가 있다는 그의 변증법이 成立된다. 그리하여 生成과 破壞, 빛과 어둠을 素材로 하여 Thomas의 神話는 창조되어 나갔던 것이다.

Dylan Thomas의 시는 과연 무엇을 母體로 해서 成長한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 Henry Treec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般論으로서는 民謠와 童話, 그리고 聖書가 Thomas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아마도 Dylan Thomas의 作品에 흡수된 다섯 사람의 풍부한 個性的인 詩人을 생각할 수 있다. 영향을 받았던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G. M. Hopkins, Hart Crane, Swinburn, Rimbeau, Francis Thompson 등이다.⁹⁾ 이상의 다섯 詩人들의 시에 대한 認識과 파악, 내지는 人間像 表出의 Analogical한 面은 일일이 對比할 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個人的 內面的 鬭爭과 무서운 實存의 苦惱를 겪었다는 점이다. 또한 후에 상론하겠으나, Dylan Thomas의 시의 파악 방법에 있어서는, Andre Breton이나 Paul Eluard 등을 정점으로 하는 超現實主義와 接近하게 된다. 그러나 超現實主義者는 침전되어, 보이지 않는 無意識상태의 영역을 生活의 가능한 형태로 表現하려고 하는 반면에, Dylan Thomas

9) Cf. Henry Treece, *Dylan Thomas: Dog among the Fairies*, (London: Lindsay Drummond, 1949), Chapter III.

는 人間의 暗黑面을 벗기고, 별거숭이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오랜 동안 불가피하게 음폐되어 있었던 것에 빛을 照明하고, 노출된 裸身을 드러나게 한다. Thomas는 자신의 詩論의 일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Poetry, recording the stripping of the individual darkness must inevitably cast light upon what has been hidden for too long, and by so doing clean the naked exposure. Freud cast light upon a little of the darkness he had exposed. Benefiting by the light and the knowledge of the hidden darkness, poetry must drag further into the clean nakedness of light even more of the hidden causes than Freud could realize.”¹⁰⁾

결국 超現實主義者들은 image의 형태에 있어서의 非合理的인, 思想의 영구적 흐름을 추구하는 반면에, Dylan Thomas는 더한층 意識的으로, 또는 비약적인 詩法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Thomas는 자신의 詩가 탄생하는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A poem by myself needs a host of images, because its centre is a host of images. I make one image—though ‘make’ is not the word; I let, perhaps, an image be ‘made’ emotionally in me and then apply to it what intellectual and critical forces I possess; let it breed another, let that image contradict the first; make of the third image, bred out of the other two together, a fourth contradictory image, and let them all, within my imposed formal limits, conflict The life in any poem of mine cannot move concentrically round a central image, the life must come out of the centre; an image must be born and die in another; and any sequence of my images must be a sequence of creations, recreations, destructions, contradictions.¹¹⁾

Dylan Thomas의 詩法은 군집하며 빛나는 象徴의 世界에다 한층 더 높은 象徴法을 構成해 나감으로써, 詩 자신이 비약하고 있는, 四次元的 詩的世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Thomas의 詩的 特徵 내지는 本質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Light breaks where no sun shines;
Where no sea runs, the waters of the heart
Push in their tides;
And, broken ghosts with glowworms in their heads,
The things of light
File through the flesh where no flesh decks the bones,

A candle in the thighs
Warms youth and seed and burns the seeds of age;
Where no seed stirs,
The fruit of man unwrinkles in the stars,

10) W. R. McAlpine, *Essays on Contemporary English Literature*, (Tokyo: Kenkyusha LTD, 1959) p. 189.

11) Anthony Thwaite, *Essays on Contemporary English Poetry* (Tokyo: Kenkyusha LTD.), pp. 106-7.

Bright as a fig;
 Where no wax is, the candle shows its hairs.
 Dawn breaks behind the eyes;
 From poles of skull and toe the windy blood
 Slides like a sea;
 Nor fenced, nor staked, the gushers of the sky
 Spout to the rod
 Divining in smile the oil of tears.
 Night in the sockets rounds,
 Like some pitch moon, the limit of the globes;
 Day lights the bone;
 Where no cold is, the skinning gales unpin
 The winter's robes;
 The film of spring is hanging from the lids.
 Light breaks on secret lots,
 On tips of thought where thoughts smell in the rain;
 When logics die,
 The secret of the soil grows through the eye,
 And blood jumps in the sun;
 Above the waste allotments the dawn halts.
 (Light Breaks where no Sun Shines)

詩形으로 볼때 이 詩는 精確한 Rhythm 과 때로는 押韻이 이루어지고 있는 定形詩가 되어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 詩의 근원을 人間存在에 관한 묘사라고 본다. 주제는 生存의 推移過程이다. 이 詩가 또한 性的 讚歌라는 것도 分명한 사실이다. 앞서도 말한 것 처럼, 음울하고, Thomas 에게는 죽음으로 통하는 것으로 認識된 性은, 새로운 生命을 낳고, 生의 환희를 주는 것이었다.

Dylan Thomas 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image 를 가지고 存在論의인 立場에서 人間을 표현하려고 한다. 第一聯에 있어서는 Marshall Stearns 에 의하면, “no flesh decks the bone's 라고 하는 것은¹²⁾ 임신 중이거나 임신 직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바다의 潮流처럼, 피가 혈관 속을 밀고 나갈때 豫知의 <빛>은 胎兒속으로 投射되는 것이다. ‘broken ghosts with glowworms in their heads’ 라는 句는 <빛 自體의 살아있는 存在>와 똑같은 것을 表現하는 듯하다. 즉 意識의 자각 내지는 子宮 속에 갇든 胎兒를 暗示하는 先見的인 意味로도 보아진다.

第二聯의 ‘A candle in the thighs’ 는 男根의 性的 象徴이라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사실이

12) Cf. Stearns Marshall W. “Unsex the Skeleton: Notes on the Poetry of Dyan Thomas,” *Sewanee Review*, LII (July, 1944), pp. 424-40.

며, 이윽고 그것이 '青春의 씨앗을 따듯이 해준다' 라는 意味의 聯關性을 이해시켜 준다. 또한 그것이 '老人의 씨앗을 불태운다' 라는 것은 불태워 無가 된다는 뜻이다. 'no seed stirs' 라는 것은 性的 老意化일 것이며, 이것을 'The Fruit of man unwrinkles in the stars' 로 表現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人間은 老衰化 해 감에 따라 精神의 昇化作用이 일어나게 되며, 人間의 생각과 精力이 天上을 志向하여, 마침내 現實에서 떠나버린다가나 宗教로 移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unwrinkles' 라는 단어는 'Bright as a fig' 라는 句를 이어서 두개가 다 똑같이 아이러니칼한 性的意味를 가지고 있다. 무화과 열매는 잘익고 싱싱할 때는 반짝이지만, 시들어서 오래 되면 주름이 진다. 마지막 行에 있어서는 metaphor의 趣向이 바뀌어지고 있다. 'Where no wax is, the candle Shows its hairs' 라는 것은, 肉과 生氣가 없는 곳에서는, 꺼져버린 芯만이 남을뿐, 性慾을 상실한 뼈만 남는다는 뜻이다. 이 stanza는 青春과 老年, 生殖과 性交不能의 상태를 對比하고 있다.

第三聯의 'Dawn breaks behind the eyes' 라는 것은, 아마도 어린이의 精神狀態의 自覺을 의미하는 것 같다. 肉體 속을 순환하는 血液의 作用을 地球의 極과 潮流, 또는 바람과 比較하고 있다. 그러나 최후의 3行에 와서는 image에 혼란이 온다. 요컨대 'the gushers of the sky'의 表現內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語句를 가지고, 비와 눈물, 油井등을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 강조되는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 占치는 막대기에 쏟아지는 噴水라는 image는 性的 象徴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the gushers of the sky'는 단순한 自然現象의 推移과정이라고도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Dylan Thomas는 人間 實存의 모습을 歡喜와 悲喪가 交錯된 推移過程으로 결론지으려 하고 있노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第四聯은, 낮과 밤 봄과 겨울을 對比함으로써 영혼이 黑暗을 벗겨나간다고하는 Dylan Thomas의 확고한 信念을 개진한 思想이라고 보아진다. 眼孔 속의 球의 image는 이러한 관련을 提示하고 있다. 즉 眠孔 속은 無意識과 不可知의 暗黑의 달에 비교되고 있으며, 眼孔의 外部는 眞理 내지는 自意識의 빛이 도달하는 뼈에다 비교되고 있다. 최후의 3行은 이 詩 全體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前行의 image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前行의 image의 推移를 말하고 있다. 'Skinning gates unpin the winter's robes'는 역시 無意識의 衝動을 發散한다는, 性的 意味의 關聯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第五聯은 가장 意味를 파악하기 어려운 聯이 되고 있다. 'thoughts in the rain'은 자아 탐구의 過程을 나타내고 있다. 비라는 단어의 自我分折의 表現은 無意識의 世界의 土壤을 깨뜨렸을 때의 反抗的인 思想, 다음 行으로 계속되는 發展의 意味가 된다.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自覺의 意識의 啓示의 片鱗이 비로서 提示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生存의 過程으로서 明示되어 있다. 아몽든 第四聯 이후는, 여러가지 意味로 해석될 수 있으나, Stearns

에 의하면 實在에 대한 묘사이며, 주제는 生命의 進行이라고 보고 있다.¹³⁾ Stanford 라는 사람도 Stearns 의 意見에 동의하면서, 이 시에는 Thanas 의 汎神論과 宇宙의 生物學的 해석을 엿볼 수 있다고 했으며, 對立物의 image 가 合體되는 見解가 提示되고 있다고 말하였다.¹⁴⁾ 그것은 곧 그의 시에 나타난 生과 死, 어둠과 빛의 過程의 <변증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것 보다 더 사람을 당혹케 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는 發展도 過程도, 矛盾의 止場도 없는 辯證法이기 때문이다. 다만 對立되는 image 의 혼합과 연속이 있을 뿐 對象 추적으로 일관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Dylan Thomas 의 詩的 特徵은 詩의 起原에 있어서 原始人이 그러했던 것 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는 정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의 움직임 그리고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되풀이 되는 감정표출이나 呪文의 양식과 비슷한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이 Thomas 의 詩였던 것이다.

2. Dylan Thomas와 超現實主義와의 關係

I fellowed sleep who kissed me in the brain,
Let fall the tear of time; the sleepers eye,
Shifting to light, turned on me like a moon.
So, planing-heeled, I flew along my man
And dropped on dreaming and the upward sky.

I fled the earth and, naked, climbed the weather,
Reaching a second ground far from the stars;
And there We wept, I and a ghostly other,
My mothers-eyed, upon the tops of trees;
I fled that ground as lightly as a feather.

(I fellowed sleep, 1-10)

이미 1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명히 Dylan Thomas 는 무언가 不吉하고 不安한, 그리고 항거하기 어려운 꿈에다 빛을 投射하고, 그 不吉함을 추방할 수 있는 image 에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이 시를 읽어보면, 暗黑으로부터의 脫出과 빛에의 憧憬이 깔려 있다. Thomas 의 시에는 Auden 과는 달리 少年期에 특유한 不安과 공포의 感情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Thomas 는 꿈의 自動記述의인 起現實主義的手法이라든가 꿈의 分析을 행한 Freud 나 Jung 에의 關心이 있었다. 따라서 Dylan Thomas 는 混沌으로부터 눈을 뜨는 일에서부터 人間界와 自然界的 兩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誕生과 成長과 죽음의 循環의 Rhythm 을 파악하여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原初의인 情熱에다 항상 빛을 投身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心理的인 것을 넘어서 人間界에 나타난 過程과 自然界에 나타난 過程의 同一視, 여기

13) Cf. Ibid., 424-40.

14) Cf. Stanford, Derek, *Dylan Thomas*, (London: Neville Spearman, 1954).

에 수반된 청년기 특유의 性的 흥분, 그리고 自然界의 過程에 대한 宗教的인 경외감 등, 모든 이와같은 것들을 뒷받침 해 주는, 잠으로부터 覺醒으로 이르는 鬪爭의 image를 그대로 발호시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表現하는 것이 Thomas의 詩의 本質이었다.

따라서 Thomas의 世界가 知的이 아니라, 感情이나 感覺, 또는 情熱이 솟아오르는 世界였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다. 그의 世界는 論理와 合理性을 받아들이지 않는 世界이다 그러나 그의 image는 「딸기처럼 순진한 아이들」이라든가, 「별의 몸짓을 하는 아이들」 또는 「웨일즈의 소리 높이 울리는 언덕」, 「사슴의 뿔처럼, 두갈래 난 덩불 숲」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폭력적인 野性味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肉體의 內部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衝動이 그의 詩의 참다운 목소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宇宙의 本質을 合理性이 아니라 오히려 非合理性으로 보고 있는 超現實主義와 그의 詩의 本質의 類似性이 거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破壞的인 동시에 構成的이었다. 合理的으로 아름답게 정리된 것에 만족할 수 없이 非合理的이며 衝動性이며, 생생하고奇怪하고, 숨겨져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詩的인 表現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人間的인 條件과 충돌하면서 人生의 不條理를 파헤치고 實在의 深淵을 탐구하는 實在主義者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그의 詩世界가 超現實主義와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제 필자는 Dylan Thomas와 超現實主義者 사이의 思想的인 類似성과 동시에 超現實主義와 그의 작품의 차이점은 검토할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우선 超現實主義의 定義부터 내려보기로 한다. 1924년에 발표된 「宣言文」에서 André Bret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超現實主義란, 순수한 心理的 自動現象을 言語로서 작품에 表現하려는 것이며, 혹은 또 그밖의 方法으로서 思想의 진실한 過程을 表現하려는 것이다. 理性이나 外部的인 모든 審美的인 또는 道德的인 先入觀에 의한 일체의 統制的 訓練을 排除한 가운데서 思想을 기술함이다. 따라서 모든 다른 心理的 기구를 분명히 排除하고, 生命의 根本的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자체로서 先入的인 偏見을 대신 한다. 앙드레·브르통」¹⁵⁾

1922년에 일어났던 超現實主義 운동은 DaDaism 운동에 대한 反抗이었다. DaDa는 모든 價値의 否定, 反抗, 파괴에 의해서 美術, 文學, 倫理 그리고 社會에 대해서까지 격렬한 否定과 공격을 가했다. 精神錯亂의 絶望狀態를 나타낸 DaDa에 대해서, 그리고 DaDa의 革命的 無政府主義的인 暴力에 대해서, 「人間의 權利에 대한 새로운 宣言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1924년의 「超現實主義革命」의 창간호가 또다른 宣言을 내렸던 것이다. 「DaDa는 일체의 否定이다 超現實主義는 그 否定의 否定, 즉 새로운 肯定이다」라고 宣言했다.

Dylan Thomas와 超現實主義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Dylan Thomas의 복잡성, 그리고 정상

15) C. W. E. Bigsby, *DaDa and Surrealism (The Critical Idiom)*, (London: Methuen & Co. LTD), p. 67.

을 벗어난, 놀랍고도 풍요로운 image 라든가, 혹은 또, 그밖의 實在에 對한 概念때문에, 연 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영국에서는, Dylan Thomas 보다는, David Gascoyne 이 超現實主義에 投身했으며, Herbert Read 가 超現實主義를 이용했었다. 다만 Dylan Thomas 의 詩的 經歷이 超現實主義 운동의 時期와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超現實主義나 Dylan Thomas 의 詩가 潛在意識의 本質과 그 極限을 探究해야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미 兩者의 차이점이 단편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나, 요컨대, 超現實主義者는 「이미지의 形態에 있어서, 非合理的인 또는 思想의 永久的인 흐름」을 추구하는 反面에, Thomas 는 더욱 意識的이며, 비약적인 詩法으로 추궁한다고 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超現實主義는 Dylan Thomas 에게 자신의 imagery 탐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주었다는 점이다.¹⁶⁾ 그리고 兩者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Breton 이나 Gascoyne 의 image 는 自然發生的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들은 詩的 image 에다 아무런 선택을 가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表現하려 들지 않는 반면에, Thomas 는 자신의 image 를 그가 가지고 있는 知的 및 비판적 認識에 적응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image 를 어느 일정한 形式의 制限 속에서 發生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Dylan Thomas 가 자기 자신의 形態 發見에 전념했던 겸허함이야말로 그를 다른 많은 超現實主義者 들 보다는도 한층 더 우수한 技法者를 만들고, 보다 더 우수한 詩人으로 만들어 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¹⁷⁾

Herbert Read 나 Gascoyne 의 超現實主義를 훨씬 능가하는 詩를 Dylan Thomas 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詩에는 超現實의 幻想의 表現이 있다. 그의 詩 중에서도 가장 긴 詩에 속하고 있으며, 3部로 되어 있다. 자필자는 편의상 I 部만을 인용하고 간단한 비평을 붙여둘까 한다.

I, in my intricate image, stride on two levels,
 Forged in man's minerals, the brassy orator
 Laying my ghost in metal,
 The scales of this twin world tread on the double,
 My half ghost in armour hold hard in death's corridor,
 To my man-iron sidle.
 Beginning with doom in the bulb, the spring unravels,
 Bright as her spinning-wheels, the colic season
 Worked on a world of petals;
 She threads off the sap and needles, blood and bubble
 Casts to the pine roots, raising man like a mountain
 Out of the naked entrail.

16) Geoffrey Thurley, *The Ironic Harvest—English poetr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Edward Arnold, 1975), p. 129.

17) Cf. Henry Treece, *Dylan Thomas*, op. cit., Chapter I.

Beginning with doom in the ghost, and the springing marvels,
 Image of images, my metal phantom
 Forcing forth through the harebell,
 My man of leaves and the bronze root, mortal, immortal,
 I, in my fusion of rose and male motion,
 Create this twin miracle.

This is the fortune of manhood: the natural peril,
 A steeplejack tower, bonerailed and masterless,
 No death more natural;
 Thus the shadowless man or ox, and the pictured devil,
 In seizure of silence commit the dead nuisance:
 The natural parallel.

My images stalk the trees and the slant sap's tunnel,
 No tread more perilous, the green steps and spire
 Mount on man's footfall,
 I with the wooden insect in the tree of nettles,
 In the grass bed of grapes with snail and flower,
 Hearing the weather fall

Intricate manhood of ending, the invalid rivals,
 Voyaging clockwise off the symbolized harbour,
 Finding the water final,
 On the consumptives' terrace taking their two farewells,
 Sail on the level, the departing adventure,
 To the sea-blown arrival.

(I, in my intricate image, I)

이 시에 나타난 image는 <나의 辯證法>이라고 일컬었던 image의 作法(혼은 發生法이라고 해도 좋다)의 개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가 말하려고 하는 두개의 'intricate image'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W. Y. Tindall은 그의 "a reader's guide to Dylan Thomas"에서 상당히 상당히 해설을 제공해 주고 있다.¹⁸⁾

예를 들어서 이 시에 나타난 얽힌 이미지는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즉 시인의 영혼과 시인의 分身(his persona and his poetry)을 말한다. 혹은 또 이것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령과 人間의 關係를 가진 存在처럼. 그러나 필자는 전자의 견해에다 강점을 두고 있다. 'brassy orator'는 Dylan Thomas 자신을 가르키는 것 같다. 이를테면 그는 黃銅을 만드는 자의 초라한 肉體와, 그의 갑옷에 숨겨진 영혼으로 이루어진 人

18) W. Y. Tindall, *a reader's guide to Dylan Thomas*, (New York: A Division of Farrar, Straus & Giroux, Inc. 1973), pp. 79-81.

間이라는 말이 된다. Thomas 라는 人間은 'mortal', 하고 'unmortal' 한 二重構造 위에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詩에 나타난 Thomas 의 모습은 發生에서 出生까지의 時期의 人間으로서 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우선 봄의 季節이 열리고, 女性의 장미와 男性의 性行爲 (male motion)의 융합으로부터 '나는' 출생한다. 날때부터 나의 肉體의 半分身으로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이 世上에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죽음에의 旅路에 올라 선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Dylan Thomas 는, 이미 충분히 앞서 언급했던 實存主義의 哲學과, 詩와 實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image들이 찾아 나섰던 旅路에는 벌써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귀에는 항상 氣候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다(Hearing the weather fall). 그리하여 <나의> 두개의 半分身들은 두사람의 敵手가 되어, 이 世上의 가상적인 항구 (the symbolized harbour)에서 출항을 하게 된다. 이 순간부터 人間은 <時間>에 支配下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 詩에 나타난 얽히고 얽힌 image는 역시 兩面的이다. 早熟과 幼兒性, 섬세와 호탕. 官能과 知性, 自然性과 自律性 그리고 潛在意識 내지는 醜陋과 自覺性의 두가지가 토마스가 소유물로 되어 있다. 사실상 Dylan Thomas 는 T.S. Eliot 보다도 W.H. Auden 보다도 image의 活性化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능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어느 詩人보다도 超現實主義를 效果的으로 훔쳐온 셈이었다. 그러나 역시 體質적으로는 Thomas 는 超現實主義者는 아니었다.

Dylan Thomas 의 詩의 本質은 詩에다 肉體를 제공한 점이다. 그의 詩에 있어서 生은 公性이라 하였고, 性은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의 辯證法)은 이미 언급한 바 있었다. 필자는 그의 詩의 또하나의 側面, 性의 imagery를 第Ⅲ章에서 탐구해 볼까 한다.

Ⅲ. Dylan Thomas의 Imagery

1. 죽음과 性의 Imagery

「나의 內部에는 野獸과 天使와 狂人이 存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探密하고 있는 것은, 이 三者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問題는, 이 三者의 隸屬과 勝利, 轉落과 上昇인 것이며 나의 노력은 이 三者의 自己表現입니다.」¹⁹⁾ 이것은 Dylan Thomas 가 詩人이며 그에 관한 최초의 著書를 출간한 바 있는 Henry Treece 에게 보낸 1938年 5月 16日字 편지의 내용의 한 부분이다. 이 글을 通해서도 Thomas 는 T.S. Eliot 나 Auden Group 과는 달리 얼마나 특이한 詩의 特色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homas 의 詩는 항상 그 자신의 問題를 時代나 社會情勢의 推移와는 아무 상관없이 人間의 根源的인 문제만을

19) Constantine Fitzgibbon: *Selected Letters of Dylan Thomas* (New York, 1966), p. 194.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人間에게 있어서 根源의인 問題란 前章에서 고찰한 삶과 죽음과 性的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미 앞에서 그의 詩의 特色과 詩世界를 매우 깊이 考察하였으며 죽음과 삶에 대한 그의 <辯證法>의 展開를 提示한 바 있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좀 더 具體적으로 그의 詩에 나타난 죽음과 性的의 Imagery 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實存의 人間像을 부각시켜 보려고 한다.

Dylan Thomas 의 詩가 性的의 image 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죽음의 觀念과 더불어 그의 詩의 가장 큰 特色이라 할 수 있다.

These boys of light are curdlers in their folly,
Sour the boiling honey;
The jacks of frost they finger in the hives;
There in the sun the frigid threads
Of doubt and dark they feed their nerves;
The signal moon is zero in their voids.
(‘I see the boys of summer’, I-7-12)

三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詩는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거니와, 萬物 속의 삶과 죽음의 共存을 말하고 있으며,²⁰⁾ 破滅을 스스로 구하고 있는 젊은이에 대한 年長者의 비판 (第一部) 과 그 비판에 대한 젊은이의 자기변명(第二部), 그리고 兩者의 의견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詩人의 判定(第三部)이라는 劇의 構成으로 成立되고 있다.²¹⁾ 또한 이 詩에는 少年의 自慰行爲 (“These boys of light are curdlers in their folly”)가 暗示되어 있다는 Derek Stanford 의 해석도 우리는 無視할 수 없다.²²⁾

이 詩는 전체에 걸쳐서 性的의 Image 가 氾濫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했던 第二聯에서만도, ‘curdler’, ‘boiling honey’, ‘The Jacks of frost’, ‘The signal moon’ 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性的의 Image 가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Jacks of frost 는 막연한 고드름이 아니라 男根을 상징하고 있다.

Dylan Thomas 의 「全詩集」 대부분이 用語 뿐만 아니라 主題 그 자체에 있어서 性과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性은 生命力の 發現이며 새로운 生命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人間の 眞實이다. 따라서 그는 “Man be my metaphor”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性을 謳歌했다고 해서 Thomas 를 저속하고 야비한 詩人, 官能을 찬양한 快樂主義 詩人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David Holbrook 는, Thomas 가 性

20) Ralph Maud, *Entrances to Dylan Thomas' Poetr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6) pp. 28-30 참조.

21) Elder Olson, *The poetry of Dylan Thom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pp. 91-93 참조.

22) Derek Stanford, *Dylan Thomas*, (London: Neville Spearman, 1954), pp. 40-44 참조.

的 Image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宗教의 色彩가 농후한 10篇의 sonnet로 이루어지고 있는 ‘Altarwise by owl-light’에 있어서도 “I am the long world’s gentleman 따위와 같은 쓸데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Thomas를 露出症患者라고 비난하고 있다.”²³⁾

Dylan Thomas는 단순한 性의 예찬자나 性을 至上의 快樂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性(生)이 너무나 자주 죽음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詩가 象徵하고 있기 때문이다. Thomas에게 있어서 性은 生 그자체였으며 그의 전체를 支配하고 추진시키고 또한 저항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주는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다.

The maggot that no man can kill
And the man no rope can hang
Rebel against my father’s dream
That out of a bower of red swine
Howels the foul fiend to heel.
I cannot murder, like a fool,
Season and sunshine, grace and girl,
Nor can I smother the sweet waking.
(‘Find meat on bones’, 25-32)

性은 “no man can kill”이라고 표현할만큼 강력한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 The maggot는 男根의 Image이며 性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性은 甘味로움(Grace and girl)과 陽光(season and sunshine)의 Imagery로써 부정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

앞서 Holbrook는 Thomas의 詩에 나타난 官能을 비난 했으나 Stuart Holroyd라는 사람은 Thomas의 詩에 있어서의 性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論評하고 있다. 「Dylan Thomas가 주로 性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Thomas가 에로틱한 詩人이었다는 잘못된 印象을 줄 염려가 있다. 사실상, D.H. Lawrence에 비하면 그는 에로틱한 요소가 훨씬 적다. 性에 대한 그의 태도는 아뭏든 그의 詩에 관한 한 거의 臨宋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性은 압도적인 神秘였다. 性이 없이는 어떤 生物도 그 個別的인 상태를 극복할 수 없으며, 또한 性에 의해서만 오로지 만물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汎神論은 통상적으로 萬物 속에 神을 보고 있으나, Thomas는 萬物 속에서 性을 보았다. 실제로 性은, 自然界에 있어서의 性과 類似한 過程과 더불어, Dylan Thomas의 神이었던 것이다.」²⁴⁾

이상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Dylan Thomas는 性 그자체를 혹은 또 性과 관련이 있는 많은 사실들을 죽음에 의해서 혹은 또 죽음과 관련이 있는 말을 가지고 暗示하고 있다. 특히 Thomas

23) David Holbrook, *Dylan Thomas and Poetic Dissoci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7), p. 82. 참조.

24) Stuart Holroyd, *Dylan Thomas and the Religion of the Instinctive Life*. From J. M. Brinin (ed): *A case book on Dylan Thomas* (1960), p.144.

의 初期詩에 나타난 性의 Image는 生命創造와 관계가 있으나, 그 生命은 필연적으로 그 속에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性은 죽음을 創造한다는 것이 우선 첫째 이유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제 生의 Anti-thesis로 거론한 죽음이 그의 詩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Dylan Thomas의 'Collected Poems 1934-19s2'를 通讀해 보았을 때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事實은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죽음을 관한 단어가 다른 意味를 가진 단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Robert C. Williams가 펴낸 'Concordance to Collected Poems of Dylan Thomas'에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있다. 이것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 회수는 dead(62回), death (56回), death's (7回), deathbeds (1回), die (17回), died (10回), dies (3回), dying (19回)로 나타나 있으며, 죽음을 관한 단어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많은 것은 love에 관계된 단어이다. 그 총계는 130회나 되고 있다. Thomas는 왜 이렇듯 죽음의 觀念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時代的 및 사회환경적인 탓 때문이었을까. 부친의 죽음과 敏感했던 詩人의 感受性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모든 理由들 뿐만아니라 필자는 여기서 宿命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죽음은 살아있는 人間의 宿命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는 단순히 人間과 그밖에 生物에 있어서 발견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宇宙의 만물이, 그리고 宇宙 그 자체가 삶과 죽음의 균형 위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²⁵⁾ Dylan Thomas는 바로 이와같은 죽음과 삶의 辯證法을 詩化하고 詩에다 實存의인 肉體를 부여했던 것이다.

우선 그의 最初의 詩集이었던 'Eighteen Poems'부터 고찰해 보기로 하자. 두말할 나위 없이 이 詩集은 性과 誕生과 죽음이라고 하는 얼핏 보아서 단순하기 그지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세가지 要素가 詩속에서 긴밀히 結合된 채 우리들의 實存에 의문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詩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고 있는 것은 子宮 속에 있는 胎兒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은 原形質의 形態를 말한다.²⁶⁾

Before I knocked and flesh let enter,
 With liquid hands tapped on the womb,
 I who was shapeless as the water
 That shaped the Jordan near my home
 Was brother to Mnetha's daughter
 And sister to the fathering worm.

 I who was deaf to spring and summer,
 Who knew not sun nor moon by name,
 Felt thud beneath my flesh's armour,

25) Ralph Maud, *Entrances to Dylan Thomas' Poetr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 17-40 참조.

26) Anthony Thwaite, *Essays on Contemporary English Poetry* (Tokyo: Kenkyusha LTD. 1957), p. 100.

As yet was in a molten form,
The leaden stars, the rainy hammer
Swung by my father from his dome.

I knew the message of the winter,
The darted hail, the childish snow,
And the wind was my sister suitor;
Wind in me leaped, the hellborn dew;
My veins flowed with the Eastern weather;
Ungotten I knew night and day.

As yet ungotten, I did suffer;
The rack of dreams my lily bones
Did twist into a living cipher,
And flesh was snipped to cross the lines
Of gallow crosses on the liver
And brambles in the wringing brains.

My throat knew thirst before the structure
Of skin and vein around the well
Where words and water make a mixture
Unfailing till the blood runs foul;
My heart knew love, my belly hunger;
I smelt the maggot in my stool.

And time cast forth my mortal creature
To drift or drown upon the seas
Acquainted with the salt adventure
Of tides that never touch the shores.
I who was rich was made richer.
By sipping at the vine of days.

I, born of flesh and ghost, was neither
A ghost nor man, but mortal ghost.
And I was struck down by death's feather.
I was a mortal to the last
Long breath that carried to my father
The message of his dying christ.

You who bow down at cross and altar,
Remember me and pity Him
Who took my flesh and bone for armour
And doublecrossed my mother's womb.
(‘Before I knocked’)

이詩에서 묘사된 「I」는 誕生 이전의 生命이다. 그것은 “shapeless as the water”의 狀態이며 性別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brother to Mnetha’s” 라든가 “sister to the fathering worm” 이 되고 있다. 이것은 곧 男根을 나타내고 있다. 「I」로부터 바라다 보았을 때 「나의 아버지는 “the rainy hammer” (이것도 男根 그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를 그 둥근 天井에서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 一節만 보더라도 Thomas의 詩는 性的 Image 그 자체로 보이고 있다. Thomas에게 있어서 性的인 것은 모두 일종의 神秘思想으로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萬物 속에 性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自然界的 眞實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性과 결부되고 더 나아가서는 삶과 결부되는 것이다.

「I」라는 生命의 源泉은, 아직 形態를 이루기 이전에, 出生후의 삶과 죽음, 그리고 運命등을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My heart knew love, my belly hunger”인 까닭이며 또한 「I」라는 存在는, 다음과 같은 存在인 까닭이다. 즉 “I, born of flesh and ghost, was neither A ghost nor man, but mortal ghost 이기 때문이다.

最後의 一節을 보면, 그리스도 자신과 同一視 되는 神話의 人物이 子宮 속에서 生命의 記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場面이 나온다. “doublecrossed” 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말의 유희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二重의 image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앞서 第一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Thomas의 image 구사법에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 “doublecrossed”라고 하는 단어는 Thomas 특유의 image 表現으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즉 “doublecrossed”라고 하는 意味는 「人間의 生命은 受胎와 出産이라는 형태로 두번 어머니의 子宮을 횡단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 단어를 「배신했다」라고 해석한다면, 「神은 聖母 마리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一般的으로 말하자면 「아버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生命을 어머니에게 출산 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뭏든 우리 人間들은 죽어가는 存在를 이 世上에 탄생시키고 있으며, 神만이 아니라 同胞까지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어도 Dylan Thomas는 性を 통해서 우리들 現代人을 파멸로부터 구출하려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도 보아진다. ‘Before I knocked’ 라는 詩는 우리들이 誕生했을 때부터, 아니 母體 속에 잉태 되었을 때부터 이미 죽음에의 旅路에 올라 있었다는 생각과 결부된다. 따라서 誕生이 죽음과 直結되어 있다는 認識을 발견하게 된다.

第一詩集 ‘Eighteen Poems’는 지금까지 진술한 바와 같이 生(性)은 죽음과 共存하고 있다는 認識의 世界였으나, 第二詩集 ‘Twenty Five Poems’ 이후의 작품은 반대로 죽음이 삶을 포함하는 다시 말하자면 죽음은 삶과 이어지는 것으로 表現되는 詩世界가 展開된다. 이와같이 Thomas의 思想이 조금씩 變化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Thomas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차츰 줄어 들고 삶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이 생기고 있다. 물론 그의 詩의 求心點은 역시 性

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性은 바로 人間的인 存在가 계속되는 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뒷받침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보더라도, 혹은 또 神話, 宗教, 哲學, 科學등 어떤 관점에서 보거나 간에, 죽음은 삶의 終末이 아니라 하나의 變化된 형태이다. 緣色의 信管을 通해서 꽃을 물고 가는 힘은, 비를 맞은 꽃이 더이상 고개를 쳐들지 않을 때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비평가 Clark Emery는 'The Force that through the Green Fuse drives the Flower' 라는 詩를 놓고 이상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²⁷⁾

Thomas는 죽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죽음으로부터 탈출하고 죽음으로부터 復活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復活의 思想은 아니었다. 필자는 Thomas의 宗教的 imagery는 第三節에 가서, 그의 第三, 第四, 第五詩集을 가지고 논급하려고 한다.

아름든 지금까지 진술했던 Dylan Thomas의 imagery의 특징은 生과 死, 創造와 破壞, 不確實한 存在의 意識이 Ambivalence의 끊임없는 반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이라는 詩에서 Thomas는 죽음을 超克하려는 안간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충실하게 복종해 왔던 情念의 인도에 대한 깊은 의문이 나타나고,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內部에서 되풀이 되었던 Ambivalence의 默認에만 일관되었던 世界에 변화가 일어난다. 죽음에 대한 服從에서 그것을 支配해야겠다는 강한 의욕이 표출되고 있다.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Dead men naked they shall be one
 With the man in the wind and the west moon;
 When their bones are picked clean and the clean bones gone,
 They shall have stars at elbow and foot;
 Though they go mad they shall be sane,
 Though they sink through the sea they shall rise again;
 Though lovers be lost love shall not;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Under the windings of the sea
 They lying long shall not die windily;
 Twisting on racks when sinews give way,
 Strapped to a wheel, yet they shall not break;
 Faith in their hands shall snap in two,
 And the unicorn evils run them through;

27) Clark Emery, *The World of Dylan Thomas*, (University of Miami Press, 1962), p. 211.

Split all ends up they shan't crack;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No more may gulls cry at their ears
 or waves break loud on the seashores;
 Where blew a flower may a flower no more
 Lift its head to the blows of the rain;
 Though they be mad and dead as nails,
 Heads of the characters hammer through daisies;
 Break in the sun till the sun breaks down,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에 있어서는 이미 죽음의 支配는 없다. 죽음이 아무리 人間에게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人間の 生命力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 강력한 것이 이詩에는 충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詩는 John Donne의 十四行詩 'Death, be not proud 와 비교가 가능하다.²⁸⁾

“They shall have stars at elbow and foot”라는 詩行 속의 stars의 image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틀림없이 이<별>은 生命力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빛을 암시하고 있다. 이詩에는 Rhythm에 있어서도 힘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사나이는 “Dead man”이라는 것도 意味深長한 사실이다. Anthony Thwaite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눈과 귀는, “the man in the wind and the west moon”라는 詩句에 있어서, “the man in the moon and the west wind”를 느껴버리고 만다. 후자가 더 抒情性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Thomas는 이와같은 Trick을 轉移의 可能性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²⁹⁾

또한가지 이詩에 나타난 iruagery의 특징을 살펴 본다면, “Though they sink through the Aea they shall rise again”에 있어서 <바다>의 imagery이다. 여기서는 Thomas가 기독교적인 復活을 생각 表現한 듯한 대목이다. 그러나 詩人 Dylan Thomas가 이와같은 復活과 一體化되어 있었는가는 의문이며,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그의 全體詩를 통해서 보진대, 그의 汎神論的 자아의 擴大가 正統的 그리스교的 人間觀 내지는 自然觀과 혼연 일체가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시에 나타난 <바다>는 定形化되어 있지 않는 液體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은 모든 것을 誕生시키는 場所이기도 하다. 復活과 바다가 결부되어 生命의 誕生과 再生이 暗示되고,

28) Anthony Thwaite, *op. cit.*, p. 103.

29) Anthony Thwaite, *Twentieth-Century English Poetry*, (London: Heinemann, Barnes & Noble, 1978), pp. 74-75.

生이라는 것이 죽음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表象하고 있다. 生이라는 것은 性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Thomas는 生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빛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2. 宗教的 Imagery

前節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第二詩集 *Twenty-Five poems*와 第三詩集 ‘*The Map of Love*’에 와서 차츰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주로 죽음과 결부되어 있었던 性이, 반대로 삶과 결부되어지게 된 것이다. 詩 가운데는 여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지만, 그 죽음은 더이상 두려워할 죽음이 아니다. 그 죽음은 삶을 내포하는 죽음이며 오히려 宗教性을 띄운 죽음으로 變容되어 나간다. 이 時期에 Thomas가 확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人間의 內部에서 강력하게 살아서 內在하고 있는 性의 힘이였으며, 人間이 存在하는 限, 不滅하는 性에 대한 認識이었다. 따라서 Thomas의 宗教性은 차츰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음은 곧 性이다라는 圖式이 그의 契機가 되었다. 그리하여 ‘*The Map of Love*’에 와서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죽음과 결부되고 있었던 性은 자취를 감추고, 그의 信仰과 肉慾과 결부되지 않는 사랑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Thomas의 시에 나타난 性은 처음부터 宗教的 意識이 강했었다. 같은 性을 묘사했던 D.H Lawrence와의 큰 차이를 엿볼 수 있다. Lawrence의 性의 달성은 人間性의 完成과 이어지는 歡喜와 榮光의 源泉이었다. 性에의 豫想과 希求였다. 그러나 Thomas는 처음부터 달랐다. 異性과의 性行爲는 비록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罪임에는 틀림없었다.

The thirst is quenched, the hunger gone,
 And my heart is cracked across;
 My face is haggard in the glass,
 My lips are withered with a kiss,
 My breasts are thin.
 A merry girl took me for man,
 I laid her down and told her sin,
 And put beside her a ram rose.
 (‘Find meat on bones’, 17-24)

A furnace-nostrilled column-membered
 Super-or-near man
 Resembling to her dulled sense
 The thief of adolescence,
 Early imaginary half remembered
 Oceanic lover alone

Jealousy cannot forget for all her sakes,
 Made his bad bed in her good
 Night, and enjoyed as he would.
 ('Into her Lying Down Head', II-5-13)

性이 罪가 되는 까닭으로, Thomas는 性을 意識하지 않고 살았던 幼年時節을 에덴 동산으로 象徵함으로써 노래하였던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性을 알게된 아담은 罪에 떨어지고, Thomas의 詩에 있어서는 男根의 象徴이 되었다. 女性도 역시 男根의 被害者이기는 하지만 性을 알게된 까닭으로 罪를 免할 수는 없다.

이렇듯, Thomas에 있어서 性은 항상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의 循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의 內部에 存在하고 있다. 다음 一節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They suffer the undead water where the turtle nibbles,
 Come unto sea-stuck towers, at the fibre scaling,
 The flight of the carnal skull
 And the cell-stepped thimble;
 Suffer, my topsy-turvies, that a double angel
 Sprout from the stony lockers like a tree on Aran.
 ('I, in my intricate image', III-1-6)

이 詩節에서는, 女性의 胼內에 깃들은 새로운 生命과 더불어 男女간의 性行爲(at the fibre Scaling, The flight, The flight of the carnal Skull은 男根의 Image를 나타내고 있다.)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暗示된 男女는, 行爲에 의해서 忘我的 歡喜에 도취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行爲의 結果로서 생기는 새로운 生命(topsy-turvies)은 生과 死의 「二重構造」(double angel)를 갖는 자이며, 그 二重構造란 바로 새로운 生命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낸 男女들도 Suffer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항상 자신의 性을 문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서도 Thomas는 너무나 人間的이었던 동시에 宗教詩人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宗教性은 어떤 特質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Thomas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祈禱였으며 讚美였다. 그리고 詩는 그에게 있어서 기도였다」³⁰⁾라고 Edith Sitwell은 말했으며, Thomas의 詩에 나타난 Wales的 要素를 重要視한 Ackerman은 깊은 宗教性이야말로 wales人的의 가장 큰 特徵이다.³¹⁾라는 前提 밑에서 Dylan Thomas論을 전개하고 있다.

Thomas의 詩에는 性의 Image가 氾濫하고 있으며 聖書에 立脚한 語句도 性의 Image만큼이나 많다. 그러나 聖書의 語句가 性의 Image로서 사용되고 있는것도 허다하다. 여기서 우

30) Edith Sitwell, *Dylan Thomas*. From A Casebook on Dylan Thomas (1960). p. 125.

31) John Ackerman, *Op. Cit.*, p. 1.

리가 쉽게 단정해버릴 수 없는 사실은, 聖書와 관계가 많은 語句나 Image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Thomas를 宗教詩人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Thomas 자신은 聖書와 자신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Bible, I have referred to in attempting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Its great stories of Noah, Jonah, Lot, Moses, Jacob, David, Solomon and thousand more, I had, of course, known from very early youth; the great rhythms had rolled over me from the Welsh pulpits; and I read, for myself, from Job and Ecclesiastes; and the story of the New Testament is part of my life. But I have never sat down and studied the Bible, never consciously echoed its language, and am, in reality, as ignorant of it as most brought-up christians. All of the Bible that I use in my work is remembered from childhood, and is the common property of all who were brought up in English-speaking communities.³²⁾

In the beginning was the pale signature,
Three-syllabled and starry as the smile;
And after came the imprints on the water,
Stamp of the minted face upon the moon;
The blood that touched the crosstree and the grail
The blood that touched the crosstree and the grail
Touched the first cloud and left a sign.

(‘In the beginning’, 7-12)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That from the solid bases of the light
Abstracted all the letters of the void;
And from the cloudy bases of the breath
The word flowed up, translating to the heart
First characters of birth and death.

(‘In the beginning’, 19-24)

이 詩는 「創世記」의 모방이며, 聖書에 진술된 天地創造의 모습과 함께 言語의 發生과 그意味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二聯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詩에서 사용된 “Crosstree”와 “Grail” “Imprints on the water”, 그리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들은 물론 聖書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詩에서 象徴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의 聖書에 관한 知識과, 그 知識을 자유로이 구사하는 wit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의 信仰과는 상관이 없다. 이 詩에서 표명된 詩人 자신은, 天地創造를 행한 神처럼, 그는 스스로의 독특한 言語를 創造하고 있는 神인 것이다. 즉 「誕生과 죽음」의 言語를 창조하는 詩人은 바로 神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神을 닮은 스스로를 自覺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문제삼은 宗教性과

32) Constantine Fitzgibbon, *The Life of Dylan Thomas*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p. 370.

관계가 있겠는가.

第1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Thomas의 시에 있어서의 眞正한 宗教性은, 絶對的인 虛無이며 恐怖의 대상이었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자신을 대치 하느냐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라고 본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Dylan Thomas 자신은 어릴때부터 不可避한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復活의 이야기를 그의 人生과 시에다 크게 공헌케 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This bread I break was once the oat,
This wine upon a foreign tree
Plunged in its fruit;
Man in the day or wine at night
Laid the crops low, broke the grape's joy.

Once in this wind the summer blood
Knocked in the flesh that decked the vine,
Knocked in the flesh that decked the vine,
Once in this bread
The oat was merry in the wind;
Man broke the sun, pulled the wind down.

This flesh you break, this blood you let
Make desolation in the vein,
Were oat and grape
Born of the sensual root and sap;
My wine you drink, my bread you snap.
(“This bread I break”)

이 시에는 과연 人間의 現實에 대한 어떤 認識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自然은 파괴적 介入에 의해서 人間의 것이 된다는 사실과, 自然이 人間의 것이 될 때의 파괴적 樣態에 있어서 나는 당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은 두개의 극히 교묘한 이야기의 重層을 이루고 있다. 일종의 戀愛詩를 방불케 한다. 人間은 자신이 먹고 生命을 유지하는 빵을 연맥의 희생으로 얻고 있다 따라서 연맥의 희생은 결코 無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포도알과 포도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빵이 예수의 살이며,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찬의 信仰은, 하나님의 죽음을 無가 아니라, 다른 삶의 효용이 될 수 있다는 Thomas의 確信의 詩的變容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있어서도, 나는 戀人을 쓰러뜨리고 戀人은 나를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것이 이세계의 全宇宙인 영위의 象徴的 樣相인 것이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論理가 바로 十七世紀의 Donne이나 Herbert 등이 구사했던 metaphysical Conceit에 가까운 것이다. Thomas의 詩의 理解를 위해서는 분명히 聖書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항목의 하나이다. 그의 宗教性이란 그의 發想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으며, 또한 原形的인 구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의 육체의 골격에 있어서의 宗教性이라 할 수 있다.

Thomas의 시의 用語나 內容에 있어서 宗教的 色彩가 매우 짙은 作品은 바로 'Altarwise by owl-light'라는 10篇으로 이루어진 Sonnet 일 것이다. H. H. Kleinman은 이 시를 十七世紀의 宗教詩人들, 특히 Herrick이나 Crashaw 혹은 Herbert와 같은 詩人들의 作品을 연상케하는 完全한 宗教詩라고 보고 있다.³³⁾ 이詩에는 宗教的 imagery와 관련이 있는 말들이 허다하게 나온다. 예를 들자면, 祭壇, 十字架, 아바돈(魔王), 아담, 天國, 이브, 樂園時代, 創世, 파라오, 가브리엘, 예수, 이스마엘, 요나, 天使, 聖母, 經典, 그리스도, 豫言者, 復活, 福音 등 등 참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宗教的 imagery와 함께 性을 암시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자면, 「긴 世界の 紳士」 「별의 射精管을 가진」, 「性의 한가닥」, 「긴 막대기를 불타오르게 한다」, 「고추 세운 아담의 사닥다리」, 「아담의 去勢한 소」 「둥근 天井의 墓穴에서 노니는 무뢰한」, 「나의 비잔틴 風의 둥근 天井의 아담이 밤에 섰다」, 「나의 가랑이의 혀」, 「푸른 거풀이 이는 女性의 水路」 등등의 表現들은 모두가 性器를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Imagery를 통해서 볼때, 과연 'Altarwise by owl-light'는 어떤 意味로서 宗教詩가 되고 있을까. 필자는 Kherinmon의 이詩에 대한 評釋은 한 卷의 책을 이루는 정도의 것이므로 비교적 간략한 Tindall의 의견을 검토하기로 한다.

Altarwise by owl-light in the half-way house
 The gentleman lay graveward with his furies;
 Abaddon in the hangnail cracked from Adam,
 And, from his fork, a dog among the fairies,
 The atlas-eater with a jaw for news,
 Bit out the mandrake with to-morrow's scream.
 Then, penny-eyed, that gentleman of wounds,
 Old cock from nowheres and the heaven's egg,
 With bones unbuttoned to the half-way winds,
 Hatched from the windy salvage on one leg,
 Scraped at my cradle in a walking word
 That night of time under the Christward shelter:
 I am the long world's gentleman, he said,
 And share my bed with Capricorn and Cancer.
 ('Altarwise by owl-light' (I))

Tindall에 의하면³⁴⁾ "half-way house"는 G. M. Hopkins에서 따온 말이며 子宮 또는 人生

33) Kleinman, Hyman H. *The Religious Sonnets of Dylan Thomas: A Study in imagery and mean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p. 12-22 참조.

34) W. Y. Tindall, *Op. Cit.*, pp. 128-130 참조.

의 중간점을 말한다. “gentleman”은 Thomas의 아버지 혹은 母胎 속에서 誕生을 기다리는 Thomas 자신이기도 하다. “hangnail”은 十字架나 男根일 것이며 “Abaddon”은 地獄의 天使이며, 파괴자이다. “fork”는 그 신사의 가랑이다. 十七世紀의 John Donne에서 유래한 “mandrake”(흰독말풀)은 아이들과 함께 性器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Thomas는 誕生하지만 아이들의 삶은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며, 젊은 「개」는 아버지의 “mandrake”를 깨물고 그 news를 세상에 알린다. 十字架上的 예수를 생각케하는 “gentleman of wounds” 즉 아버지는 “penny eyed”의 상태로 죽어 있다. “이어 cock from nowhere”는 바람개비이며 또한 十字架上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bones unbuttoned”는 男根이며 무덤이다. “a walking word”는 聖스러운 神의 말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詩人 Thomas를 가르킨다. “night of Time”과 “Christward Shelter”는 子宮이며 그것은 “long worlds gentleman” 즉 男根을 위한 “half-way house” 즉 무덤을 말한다. “long world’s gentleman”은 아버지인 동시에 아들이기도 하다. “son”은 發音が 같은 “sun”을 나타내며 太陽인 까닭으로 그 신사는 天空에서 “Capricorn”과 “Cancer”와 같은 星座와 함께 存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詩에 나오는 Imagery를 분석해 볼때, 이 詩는 人間의 誕生을 둘러싼 상황을 말해주는 詩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傷處투성이가된 신사인 그리스도는 性의 十字架에서 끌어 내려짐으로써, 빈사상태가 되어 있다. 이 性의 十字架 속에 숨어 있었던 魔王(Abaddon) 역시 「Adam의 肉體로부터」 즉 아버지로서의 人間의 肉體로부터 뛰어나와서 다음 세세대의 파괴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 詩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파로스의 十字架로부터 새로운 人間 “Tomorrow’s scream”이 들려오는 것이다. 이 詩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甯靜을 울려 주는 것은 죽음과 삶의 <辯證法>의 울림이었던 것이다.

IV. 結論—Dylan Thomas의 神話와 實存의 人間像

Dylan Thomas의 第二詩集인 ‘Twenty-Five Poems’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詩가 들어 있다.

A grief ago,
 She who was I hold, the fats and flower,
 Or, water-lammed, from the scythe-sided thorn,
 Hell wind and sea,
 A stem cementing, wrestled up the tower,
 Rose maid and male,
 Or, masted venus, through the paddler’s bowl
 Sailed up the sun;

Who is my grief,
 A chrysails unwrinkling on the iron,
 Wrenched by my fingerman, the leaden bud
 Shot through the leaf,
 Was
 (A grief ago, i-13)

이 시에는 性의 苦惱를 경험했던 한 사나이 (Thomas)의 슬픔이 吐露되고 있다. 性行爲가 끝난 후의 人間의 悲哀는 人間의 實存의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Dylan Thomas는 사랑, 不滅의 사랑이야말로 죽음일 수 밖에 없는 性 때문에 괴로워하는 人間이, 動物과는 다른 진정한 人間으로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고 'Love is the last light spoken'의 世界로 突進해 나갔던 것이다. 결국 Thomas는 幼年時節의 記憶에만 매달리지 않고, 詩人의 作業은 初期作品이 가지고 있었던 "The gentle seashides of saying I must undo"라는 態度를 지니고 살아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第二章에서도 논급한 바와 같이 차츰 Thomas는 宗教의 人生態度로 옮겨 갔으며, 이윽고 晩年の 偉大한 몇편의 詩가 誕生하기에 이르렀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詩들이 카톨릭의 影響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사실상 Thomas가 正統 기독교 教義를 받아들였을까 라는 문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Unluckily for a Death'라는 詩作品과 이 作品에 대한 Vernon Watkins의 주석³⁶⁾을 통해서 Thomas의 精神的인 變化를 엿볼 수 있다. 즉 詩集 'Deauth and Entrance'에 들어 있는 初稿와, 'Collected Poems'에 들어있는 完成作의 改訂과정은 모든 變化가 아이러니컬한 것으로부터 宗教的 進술에의 이행이라는 것이다.

Loving on this sea banged guilt
 My holy lucky body
 Under the cloud against love is caught and held and kissed
 In the mill of the midst
 Of the descending day, the dark our folly,
 Cut to the still star in the order of the quick
 But blessed by such heroic hosts in your every
 Inch and glance that the wound
 Is certain god, and the ceremony of souls
 Is celebrated there, and communion between suns.
 Never shall my self chant
 About the saint in shades while the endless breviary

35) Aneurin Talfan Davies, Dylan: Druid of the Broken bod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64), pp. 36-37 참조.

36) Letters to Vernon Watkins (Faber & Faber, 1957) p. 64.

Turns of your prayed flesh, nor shall I shoo the bird below me:
The death bidding two lie lonely.
(‘Unluckily for a Death’) (25-28)

원래의 詩는 宗教的 表現이 없으며 夫婦의 관계와 肉慾的인 사랑을 詩的으로 表現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위에 인용한 改訂版에서는 完全한 變質이 나타나게 되고, 肉慾은 이제야 새로운 次元 즉 精神的인 次元을 얻게 된다. 詩人은 性行爲를 “the ceremony of souls”이나, “Communion between suns” 로 까지 보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反宗教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카톨릭信仰의 Sacramental 한 全體系가 바로 이점에 있어서 긍정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³⁷⁾

Dylan Thomas 의 詩의 質的 및 精神的 變化는 後期詩에 와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면에 있어서도 죽음을 強調하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再生과 復活의 주제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또하나의 實證으로서는 詩集 ‘Death and Entrance’ 가 말해주고 있으며, 詩作品으로서 「幻想과 祈禱」(Vision and Prayer) 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vision and prayer’는 「열방에서 태어난 당신은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太陽은 기도가 끝나자 드높이 소리를 질렀다」에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母胎의 安全함과 어둠으로부터의 탄생의 공포와 고통을 겪은후, 눈부신 生命인 太陽속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人間이 未知의 어둠으로부터 “the dazzler of heaven” (太陽)의 빛으로 구출되는 것을 묘사한 詩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이 결코 神의 恩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詩에 나타난 太陽의 Imagery 는 사랑일 수도 있고,³⁸⁾ Thomas 의 아이들이며, 詩나 혹은 또 Thomas 자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³⁹⁾

形式上 이 詩는 또한사람의 Wales 系의 詩人, 聖者的 풍모를 지닌 George Herbert 를 연상케 하는 作詩法을 구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Vision and Prayer’ 의 血統은, John Donne, G. Herbert, James Joyce, David Jones 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Who
Are you
Who is born
In the next room
So loud to my own
That I can hear the womb
Opening and the dark run

37) A. T. Davies, *Op. Cit.*, p. 38.

38) W. T. Moynihan, *The Craft and Art of Dylan Thomas* (New York: Ithaca, 1966), p. 267 참조.

39) W. Y. Tindall, *Op. Cit.*, p. 248 참조.

Over the ghost and the dropped son
 Behind the wall thin as a wren's bone?
 In the birth bloody room unknown
 To the burn and turn of time
 And the heart print of man
 Bows no baptism
 But dark alone
 Blessing on
 The wild
 Child.
 ('Vision and Prayer', 第 I 聯)

I turn the corner of prayer and burn
 In a blessing of the sudden
 Sun. In the name of the damned
 I would turn back and run
 To the hidden land
 But the loud sun
 Christens down
 The sky.
 I
 Am found.
 O let him
 Scald me and drown
 Me in his world's wound.
 His lightning answers my
 Cry. My voice burns in his hand.
 Now I am lost in the blinding
 One. The sun roars at the prayer's end.
 ('Vision and Prayer' 최종련)

'Vision and Prayer' 라는 시작품에 대해서, A.T.Davies 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評釋을 내려주고 있다. Vision 과 Prayer' 는 오히 한가지 George Herbert 의 圖型詩와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즉 그 圖型은 그 형태를 완전히 印刷工의 근면성에 맡겨버리는 그런것이 아니라, 名匠인 詩人자신이 스스로의 vision 에 따라 作成했다는 점에 있다. 이詩는 Diamond 의 圖型으로, 엄격한 音節計算이 決定되고 있다. 즉 單音節의 第一行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一音節씩, 이어지는 行에 계속 첨가되어 最後에는 아홉개의 音節에 도달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순서로 줄어가다가, 最後에는 역시 單音節로 끝난다. (이따금 不規則도 있다) 그는 이 詩型을 一聯의 詩의 前半에서 사용하고 'Vision' 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 詩型의 上半과

下半을 切斷하고,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서 Herbert의 詩, 'Easter wing'을 상기시켜주는 것
과도 같은 그의 詩의 後半의 形式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形式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눈물방울, “聖杯”, “子宮이 열린 형태” 등등의 해석들이 있다. …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말한다면, 이 Diamond의 圖型은 象徴的으로 誕生과 그때의 子宮의 형
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後半의 圖型은, 이 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十字架를 상징하고 있
다고 하고 싶다.]⁴⁰⁾

Thomas의 詩作品 前부를 潤色하고 있었던 것은 精神의 光輝의 記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vision and Prayer'의 최종면은 Thomas의 詩의 展開에 흥미있는 빛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최종면에 나오는 太陽은, 初期詩의 「肉體를 먹는」 太陽이 아니라, 再生
과 精神의 은총의 metaphor가 되고 있는 것이다. 죽어야만 한다는 存命의 Image가 아니라,
구원의 Image가 되어 있는 것이다.

Dylan Thomas가 現代詩人으로서 필자에게 意味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정녕코 始源
的인 곳에서 生命의 意味를 우리에게 던져 주려고 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바로 Thomas
의 詩에 나타난 本質的인 면이며, 그의 神話의 本質이기도 하다. 이제 필자는 結論的으로 그
의 詩의 神話와, 그의 詩 속에 표현되었던 實存의 人間像을 피력해야할 단계에 도달한 것 같
다.

Dylan Thomas의 詩世界가 知的이 아니라, 感情과 感覺, 그리고 熱情이 쏟아져 나오는 세
계임을 필자는 이미 진술한 바 있었다. 論理와 合理的인 思想을 否定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精
神에 이어 肉體의 世界가 非人間化되고 分解되어 감에 따라, 그 解體를 뒷받침해 주고, 연결
시켜주는 틀로서 새로운 神話가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現代의 歷史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宿命的인 現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Eliot의 Catholicism, Valery의 'Park',
Rilke의 '天使' 등은 모두가 虛像的인 近代의 神話, 解體의 神話에 어울리는 등장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現代에 요구되고 있는 神話에 있어서는, 解體의 次元 그 자체가 論理
를 받아드리지 않고, 知性보다는 오히려 本能과 관련을 갖게 되며 感情의 機構라든가, 生理
나 感覺의 暗號的인 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肉體의 內部로부터의 衝動
이 주요한 動力의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의 神話는 實存主義的인 不條理와
非合理的인 世界와 밀접한 連關性을 가지고 있다. James Joyce가 'Ulyses'에서 시도 했던 것처
럼, 혹은 또 Eliot가 'Four Quartets'에서, Valery가 'La Jeune parque'에서 Rilke가 'Rilken
Duineser Elegien'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옛 宗教나 神話, 그리고 傳說등을 解體分析
함으로써 不條理나 非合理性, 非人間化와 抽象化의 世界觀에 어울리는 형태로 再構成하기도
하고 그것과 비슷한 것을 창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이 곧 「破壤과 동시에 構成」이며, 혹
40) A. T. Davies, *Op. Cit.*, p. 41.

은 또 「創造와 再創造, 破壞와 矛盾」이라고 하는 메카니즘을 갖는 現代의 神話의 悲劇의 運命이며, 이 神話에 등장하는 人間들의 實存의 人間像인 것이다. 이상에서 논급한 바와같이 Dylan Thomas의 시世界에도 바로 이와같은 實存의 人間像을 지닌 人間이 등장했던 것이며 그의 Image의 메카니즘을 곧 이러한 現代의 神話의 메카니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Dylan Thomas는 차츰 그의 시와 眞實에 直面하려는 자세를 취해 나갔다. 따라서 그는 다가오는 죽음의 발자욱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病的인 짐착이 아니라 죽음과 直面하게 될때의 하나의 現實意識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요절에 대한 豫感이 강했다. 그의 晩年の 몇편의 시는 최후의 敵에 대한 排戰의 소리로 가득히 울려 퍼져나갔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바가 컸었다.⁴¹⁾

그러나 Thomas는 그의 生涯가 끝날무렵 차츰 現實主義的인 일면이 되살아 났으며 그의 시의 燃燒에도 새로운 빛과 힘, 그리고 人間의인 含蓄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모든 批評家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었던 그의 시의 우수성은 'Especially when the October wind'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詩에서는 시의 Image가 人間의 內部的 순결성을 직접적인 感動을 가지고 전달해 주고있다. 그리고 Thomas의 神話創造의 方法이 분명히 엿보이는 作品이다. 결국 神話란 人間像이나 世界觀 속에다 合理性과 日常性을 초월한 要素가 크게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Especially when the October wind
With frosty fingers punishes my hair,
Caught by the crabbing sun I walk on fire
And cast a shadow crab upon the land,
By the sea's side, hearing the noise birds,
Hearing the raven cough in winter sticks,
My busy heart who shudders as she talks
Sheds the syllabic blood and drains her words.

Shut, too, in a tower of words, I mark
On the horizon walking like the trees
The wordy shapes of women, and the rows
Of the star-gestured children in the park.
Some let me make you of the vowelled beeches,
Some of the oaken voices, from the roots
Of many a thorny shire tell you notes,
Some let me make you of the water's speeches.

(‘Especially when the October wind’, 1-16)

이詩의 第聯의 六行까지는 “syllabic blood”를 흘리는 詩人, 즉 詩創造의 어려움을 겪는

41) A. T. Davies, *Op. Cit.*, p. 64.

“busy hear”를 묘사하고 있으며 十月의 바람은 詩人의 머리칼을 罰한다. 가을 太陽의 色彩感, 붉은계곡의 色彩는 詩人의 心臟의 피의 색깔과 함께 苦斗의 imagery이다. 詩人의 言語와의 鬪爭은 피의 싸움이니까. 第二聯에 와서는 風景과 言語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地平線 위를 걸어가는 女人들이 나무숲 처럼 보이는 것은 視覺的인 類似性만이 아니라 兩者가 다같이 「言語의 형태」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Dylan Thomas는 그의 詩와 言語의 기교를 가지고 이러한 外界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Dylan Thomas의 晩年의 詩集 ‘Death and Entrancē’와 ‘In Country Sleep’에서는 誕生과 죽음의 逆說, 혹은 또 悲劇의 主題가 여전히 얼굴을 내밀고 있으나, 詩人은 주로 깊은 內部の 靜謐을 획득하고 있다. 대부분의 詩는 빛을 向해 움직이고 있으며 聖스러운 빛이 再創造된 幼年期的 風景을 천진무구한 光輝로 뒤덮고 있다. 그것은 또다시 되찾은 樂園의 빛이었던 것이다.⁴²⁾ 그러나 ‘Fern Hill’은 幼年時節의 鄉愁인 同時에 잃어버린 青春을 노래하는 挽歌이기도 하다. 이 詩에서는, 精神과 肉體의 挽歌는 Thomas가 말하고 있는 「創造와 再創造, 破壞와 矛盾」의 Image의 연속이 되어 터져나오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現代의 實存의 人間像으로부터 放射되는 神經質의이며 激烈한 自己矛盾의 폭발이 이 詩全體에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Now as I was young and easy under the apple boughs
 About the liltng house and happy as the grass was green,
 The night above the dingle starry,
 Time let me hail and climb
 Golden in the heydays of his eyes,
 And honoured among wagons I was prince of the apple towns
 And once below a time I lordly had the trees and leaves
 Trail with daisies and barley
 Down the rivers of the windfall light.
 And as I was green and carefree, famous among the barns
 About the happy yard and singing as the farm was home,
 In the sun that is young once only,
 Time let me play and be
 Golden in the mercy of his means,
 And green and golden I was huntsman and herdsman, the calves
 Sang to my horn, the foxes on the hills barked clear and cold,
 And the sabbath rang slowly
 In the pebbles of the holy streams.
 (‘Fern Hill’, 1-18)

詩人은 生命의 歡喜 속에서 이 聖스러운 無垢를 直面하고 祝福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42) A. T. Davies, *Op. Cit.*, p. 63.

Nothing I cared, in the lamb white days, that time would take me
 Up to the swallow thronged loft by the shadow of my hand,
 In the moon that is always rising,
 Nor that riding to sleep
 I should hear him fly with the high fields
 And wake to the farm forever fled from the childless land.
 Oh as I was young and easy in the mercy of his means,
 Time held me green and dying
 Though I sang in my chains like the sea.
 ('Fern Hill', 50-59)

Dylan Thomas의 시는 現代英詩에 있어서 現代의 殘酷한 人間의 싸움의 최초의 偉大한 記念碑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시의 모든 조잡함과, 회의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人間의 사랑을 위하여 神을 위한 찬미로서 쓰여진 것이었다.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임).

Bibliography

Primary sources

- 18 Poems* (London: The Sunday Referee and Parton Bookshop, 1934).
Twenty-five Poems (London; J.M.Dent, 1936).
The Map of Love (London: J.M.Dent, 1939).
Death and Entrances (London: J.M.Dent, 1946).
In Country Sleep (New York: New Directions, 1952).
Collected Poems, 1934-1952 (London: J.M.Dent and Norfolk, Connecticut: New Directions, 1952).
Letters to Vernon Watkins. Introduction by Vernon Watkins (London: J.M.Dent and Faber and Faber, 1957).

Secondary Sources

- Ackerman, John, *Dylan Thomas, His life and Wor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Brinnin, John Malcolm, *Dylan Thomas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1955.
 Cox, C.B., *Dylan Thoma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6.
 Davies, Aneurin T., *Dylan Thomas: Druid of the Broken Body*, London: J.M. Dent, 1964.
 Emery, Clark M., *The World of Dylan Thomas*, Coral Gables, Fla: University of Miami Press, 1962.
 Fraser G.S., *Dylan Thomas*, London: Longmans, Green, 1957.
 Fraser, G. S., *Vision and Rhetoric: Studies in Modern Poetry*. London: William Heinemann, 1960.
 Holbrook David, *Dylan Thomas, and Poetic Dissociation*, Carbondale: University Southern Illinois Press, 1964.

- Kleinman, Hyman H., *The Religious sonnets of Dylan Thomas: A Study in Imagery and Mean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Maud, Ralph, *Entrance to Dylan Thomas's Poet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3.
- Moynihan, W.T., *The Poetry of Dylan Thomas: A Study of its meaning and Unit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1962.
- Olson, Elder, *The Poetry of Dylan Thom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 Robert Coleman Williams (ed): *A Concordance to the Collected Poems of Dylan Thoma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7.
- Rolph, J. Alexander, *Dylan Thomas: a Bibliography*, London: J. M. Dent, 1956.
- Stanford, Derek, *Dylan Thomas*, London: Neville Spearman, 1954.
- Tedlock, E. W. (ed.), *Dylan Thomas: The legend and the Poet*, London: Heinemann, 1960.
- Tindall, W. Y., *A Readers guide to Dylan Thomas*, New York: Farrar, Strauss and Cudahy, 1962.
- Treece, Henry, *Dylan Thomas: Dog Among the Fairies*, London: Lindsay Drummond, 1949 revised edition, London: Ernest Benn, 1959.

ABSTRACT

In this thesis the writer tried to study the existential vision in Dylan Thomas's poetry. Thomas was the pattern of the poet as a bohemian, and as an existentialist like Rilke, and this was in many ways a misfortune for him. However, he was regarded in a sense as an optimist by a few critics, because he continued an ontological struggle from his early poetry to the last which never abandoned and never be proved successful a dilemma that underlies the tragic vision of existentialist literature. Thomas recognized a mystery in everything in the universe, and the greatest mystery of all is the fact of human consciousness: that is to say, the awareness of man of his fate at this juncture of time and space, and the recognition of man's irreducible irrationality of existence. He himself embodied an Existential vision in modern times and modern poetry.

The sources of his poems came from writers such as Hopkins, Hart Crane, Swinburn, Rimbeau, and Francis Thompson, and movements such as dadaism and surrealism which had some relation influence on with his poetry. Nevertheless, strictly speaking, the poetry of Thomas was apparently unrelated to any tradition. As acknowledged by all critics, the age was fond of explicating obscure poetry, and many found his poetry difficult, irrational, and undisciplined. His poetry was so obscure that no one could explicate it.

In his early poetical world, he was obsessed with the idea of death and sex, and the two themes are often identified as the same thing; he pursued the light through the darkness. Thomas's early poems begin with the assumption or insistence that we start to die from the moment we are born—even, in fact, from the moment we are conceived, so that this continual process of dying is linked with everything in this world, and this process of dying developed dialectically in his poems. What is the most remarkable thing in his early poems is that Thomas tried to find poetic symbols adequate to his experiences. At any rate, Thomas experimented with new themes, new images and new styles in 18 Poems, 'Twenty-five poems' which brought him praise and fame.

After the publication of 25 poems, Thomas became more and more religious and then in his poetical world of 'The Map of Love' shows new interest for the human being. Some excellent poems in this anthology do not aim at dark, packed, and concentrated, images but at bright, expansive effects. The voice of his poems and the tone of his poems changed much, but he was still possessed by the life-death paradox in other ways.

Lastly the later poems, included in 'Death and entrance' and 'Vision and Prayer' turned again to the theme of death, not the 'dark death' of earlier poems, but the nearness

in life to death in all nature that surrounds us. In these poems his imagery is not drawn from the darkness of his own inner depth, but from the broad, bright estuary in Wales. By constructing the new Myth, Thomas showed us a movement towards light, and a holy effulgence despite the tragic themes of many of his poems. Finally he created the landscape of recreated childhood with an innocent incandescence. This is the poetical world of Dylan Thomas. Struggling with life-death and sex-death paradoxes, Thomas always sang for the love of man and in the praise of God.